

1950년대 중학교입시제도개혁의 전개과정

강일국(姜一國)*

논문 요약

상급학교 입시제도의 개혁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수반한다. 해방 직후 중등학교 입시제도의 개혁도 이와 같은 진통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입시제도는 한국 전쟁 전까지는 대체로 일제하의 입시제도를 유지하다가, 전쟁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입시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존의 암기위주의 입학시험제도를 개혁하여 수험자의 실생활과 관련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학력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이해관계가 다른 각 집단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시기의 입시제도는 각 집단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 주요어 : 새교육운동, 중학교, 입학시험, 입학경쟁, 1950년대

I. 들어가며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발전사는 학력주의가 강화되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력주의는 교육과정, 학교운영, 입시제도 등 교육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학력주의를 통한 교육경쟁이 과열상태에 이르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

*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은 입시제도였다. 지금도 교육문제의 대부분은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입시제도의 개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입시제도는 우리 사회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고, 각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개혁의 방향을 변화시키고자 경쟁하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는 학교교육과정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입시제도 개혁이 이와 같은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시제도 개혁정책은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기 보다는 상당히 제약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정책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에도 하나의 실험처럼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여기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방이후 중학교 입시제도 개혁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해방이후부터 이러한 입시제도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개혁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이었다. 1950년대 중학교 입학시험제도 개혁정책은 과도한 입시부담을 줄이고, 암기에 의한 지식위주의 평가보다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업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 들어 공식적으로는 초등교육에서 완전취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등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시험경쟁이 가장 큰 교육문제가 되고 있었다.

입시제도 개혁에 초점이 된 부분은 입학시험이 지식의 암기량만을 측정할 뿐 학생들이 자기 생활을 개조할 수 있는 힘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시험 준비만을 위하여 암기량을 늘리는 학습방식은 학생들의 생활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시험도 학생들의 생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소위 '새교육운동'을 주장했던 초등학교 교사나 교사출신 장학관들이었다.¹⁾ 이들은 해방직후부터 새로운 교수법을 들여오는 데 기여하였고, 교수법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50년대부터 교육과정을 개조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제1차 교육과정 제정에도 참여한 이들은 1950년대 후반에 중학교 입학시험제도개혁을 비롯하여 교육평가의 개선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강일국, 2002).

본 연구에서는 해방이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령 시기인 1961년까지,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국민학교 측과 중학교 측이 어떤 입장을 나타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온 입시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해방 직후부터 전쟁직후까지 중학교 입학시험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핀 후, 1950년대 후반 중학교 입학시험제도의 개혁과정 그리고 이와 맞물려 실시된 초등학교 학력평

1) 여기서는 이들을 총괄하여 새교육론자라고 지칭할 것이다.

가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제도의 변천은 해방이후부터 1차 교육과정령기까지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방직후부터 전쟁 전까지의 새로운 입시전형을 모색하는 시기(1945-1950), 한국전쟁기간 동안에 국가고시로 입학시험을 대신한 국가고시기(1951-1953), 내신 필답을 병행한 중학교 단독출제기(1954-56), 그리고 무시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시기(1957-1961)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앞 세 시기를 묶어서, 무시험제도 도입 이전(1945-1956)과 이후(1957-1961)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방 이후 중학교 입학시험제도의 변화(1945-1956)

해방 직후부터 새로운 입시제도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일제하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까지 주로 각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관리하였다. 해방직후인 1945년에는 일제하에서 입학시험을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해방 후 첫 시험은 1946년도에 있었다. 1946년 당시 기사를 보면 이미 해방직후부터 입시지옥을 없애기 위해 시험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1946년 6월 8일자 『동아일보』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입시지옥의 시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중학교 입학시험을 개선하였는데 시험에 반영하는 내용은 ① 출신학교 강의 추천서 ② 필답시험 ③ 구두시험 ④ 신체검사 성적이었다. 필답시험은 ‘국민학교에서 수업한 전 학과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국어, 산술 등 수험과목 중심의 출제를 탈피하고 전 과목에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출신학교 강의 추천서는 6학년 학급의 학년성적 일람과 출신학교장 의견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일제하의 중학교 입시전형과 대체로 유사해 보인다.

1947년에 문교부에서는 ‘출신학교장의 조사의 신체검사, 지능검사 및 인물고사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종합판단하여’ 선발하도록 각 도에 통첩하였다. 지능검사는 500점 만점으로 하고 그 내용은 국민학교에서 수업한 전 학과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문제수는 50문제 이상,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인물고사는 아동의 언어, 태도, 성격 기타 인물에 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면접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험형태는 국민학교 학과목의 내용을 암기해서 적는 방식보다는 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얼마나 지능을 측정하였는지는 의심스럽다. 당시 지능검사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문제화할 만한 역량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능검사와 같은 평가

의 유형이 널리 소개되고 논의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였다. 이 시기의 지능검사는 여전히 학과목의 내용이나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를 묻는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에는 '종래의 학과 시험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능검사와 신체검사만 시행하도록' 하고 (동아일보, 1948.5.25), 국민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게 하였으나 다시 1949년 다시 폐지되었다 (동아일보, 1949.5.26). 즉, 시험성적만으로 입학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신서를 통해 반영된 국민학교 성적이 정확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 때문에 다시 중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만으로 입학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교장의 경우 압도적으로 내신성적의 반영을 주장하는 반면, 학부모나 중등학교 교장의 경우 내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전쟁직전에는 학력고사와 신체검사로 시험성적을 산출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중학교 입학시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문제였다. 서울 수복이 안 된 상태에서 수복지구 학교들의 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각 학교들이 피난지에서 임시적으로 학교를 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을 국가시험으로 보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다. 당시 국가시험을 주장하였던 심태진에 따르면 전쟁 하에서의 국가시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입학시험을 국가가 관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본 심장학관 자신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마침내 중학교 입학시험은 국가주관 하에 1951년 7월 31일에 실시하였다. 당시 전국 154군 가운데 140군 국민학교 6학년 재적자의 약 24%에 해당하는 91,684명에게 실시된 입학시험으로 장차 수복 후에 입학할 중학교에 입학이 허가되었으며, 수복될 때 까지는 피난지 최근 거리의 중학교에 위탁 수용되어 교육을 받았다(심태진, 1981, p.81-82). 국가고시제는 정부가 환도하기까지 3년동안 실시하였고 큰 무리 없이 시행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국가주도로 시행하던 시험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중등학교 측에서 많이 일어났다. 특히 1953년 연합고사가 실시된 이후 중등학교 교장들은 학생선발권을 돌려줄 것을 문교부 측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학교 교장과 학부모들은 중학교장의 의도가 불순함을 주장하며 문교부에 찾아가 항의하기까지 하였다(동아일보, 1953.12.15).

중학교장들이 반발한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입학의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획일적인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중학교간의 학교차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에게 객관적 고사법의 시험준비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의 기형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학교 교장이나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중학교가 단독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학교 입시문제가 국민학교 교육의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교육을 시험을 위한 교육으로 왜곡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가 학생선발의 전권을 장악할 경우, 보결생 입학과 같은 부정입학을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민학교 측에서는 국민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성적이 입학 시험에 반영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민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중학교측은 국민학교가 학생성적을 결정하는 데 전권을 장악할 경우, 국민학교 역시 '치맛바람'에 휘말려 부정으로 성적산출을 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양측 다 서로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했고, 바람직한 국민학교 교육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립은 중학교 입학시험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되었고, 국민학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54년에 입학시험에 대한 큰 파동이 일어났다. 1954년도에 국가고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발표하고 입학지원을 마감할 단계에 돌던 대통령이 諭示를 발표하여 입학시험을 일체 백지화하고 중학교에 일임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54.2.20). 이미 국가고시로 중학입학시험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지원자마감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유시으로써 이를 철회하도록 한 것은 일대 큰 혼란을 주었던 것 같다. 결국 1954년 시험은 3월 8일 중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실시되었다. 시험은 3월 8일 필답고사, 3월 9일 면접 및 신체고사로 진행되었다.

중학교가 국가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생 선발권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필답고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고시제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즉, 객관식 출제로 인해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연히 옳은 답을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논문식 문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논리력과 같은 것을 국가고시제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발고사의 주체와 방법에까지 문제가 확대된 셈이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문교부에서는 1955년 5월 다시 중학입시를 변경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입시제도가 국민학교 교육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중학교측이 금품을 강요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잠시 뿐이었다. 1955년 11월 문교부에서는 명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시험 요강을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지방장관에 일임하여 '자유경쟁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결국 이 시기(1954-56)에는 대통령의 유시로 인해, 1954년부터 국가고시제가 폐지된 후 1956년까지 중학교에서 단독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내신성적의 경우 1954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55-6년도

에는 국민학교 내신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필답고사와 신체검사 면접 점수를 입학전형의 자료로 삼았다.

이 시기의 특색은 국가시험제를 반대한 중등학교측의 요구가 전격적으로 채택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학교 내신성적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학시험의 전권을 중학교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국민학교측의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지원자들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유시를 통해서 시험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당시 당국에 대한 중학교 측의 영향력 혹은 설득력이 대단히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는 후 국민학교 내신성적의 반영을 하겠다는 문교부 방침이 발표까지 있었으나 다시 중학교 필답고사만으로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입시와 관련된 쟁점은 누가 학교 선발권을 갖느냐 하는 선발주체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입시문제의 형식과 내용이 더 교육적인가 하는 입시문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가 하는 공정성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57년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Ⅲ. 새로운 중학교 입학시험제도의 도입과 갈등(1957-1961)

1. 새로운 입학시험 제도의 도입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이 아닌 지식의 암기량만을 측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도가 무시험제도였다.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로 매년 논란이 되어 오다가 1956년 9월 열린 전국장학관 회의에서 국가고시제와 중학교 단독출제제 사이의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무시험제를 제안하였다. 각 지방별로 각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있었고, 특히 말썽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무시험제를 지향함을 원칙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각 중학교장에게 일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통첩된 문교부 방침의 대략적인 내용은 필답고사를 주로 할 경우, 첫째, 국민학교 전 교과에 걸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 음악 및 미술은 실기를 평가하도록 하고, 둘째, 각 교과는 육학년 교재 범위내에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내신 성적의 경우, 첫째 국민학교의 교과성적을 전형자료로 30%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되 5단평가점의 환산기준은 중학교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둘째 행동평가 및 특별활동의 평가는 선발권 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셋째, 국민학교 내신서는 문교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허위내신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최윤수, 1956).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도에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했고, 각 중학교에서는 다시 이 기준을 반영하여 입학전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첩하더라도 각 자치제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였던 것이다. 각 도에서 결정한 1957학년도 중학교 입학전형의 대체적인 경향은 무시험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무시험제를 단행한다는 결의를 보았다. 이러한 결정은 중학교장에 일임한다는 원칙과 배치되어 보이지만 각 도의 지도위원회 자체가 대부분 중학교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자체의 결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청북도에서는 도에 '국민학교 내신성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에 대한 대책을 심의 수립하고 이 위원회에 제출된 내신서를 채점하도록 하였다. 내신성적은 평점과 재적수에 따라 일률적인 공식으로 계산하였고 내신성적에 실기점수와 체능점수를 합하여 총점으로 계산하였다(최윤수, 1956). 충청북도이외의 도에서는 대체로 각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무시험제와 필답고사의 전형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국민학교 교장회의에서 중학교 입학문제에 대하여 '무시험제 채택'을 의결하여 23일 전에 각 중학교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타진하였으며 대체로 무시험제 실시에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볼 수가 있다(동아일보, 1957.11.16).

무시험전형제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은 서울시였다. 특히 서울시는 무시험 전형제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하면서 무시험제 도입을 그저 기다릴 수는 없다며 곤혹스런 시의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최윤수, 1956).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준이 높고 상호관련에 복잡성이 심하므로' 객관성을 극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이 높고 복잡성이 심하다'는 것은 다른 도와는 달리 입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 공정성을 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선발전형의 최종결정은 중학교장에 일임하지만 당분간은 필답고시제로 나아가리라고 밝히고 있다.

필답고사를 행할 경우, 필답고사·실기고사·국민학교 내신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민학교 내신서査定은 30%정도로 반영하되 평점기준은 중학교 측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은 이를 점수화하지 않고 다만 합격사정권의 참고자료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무시험전형에 관해서는 상관회귀선법 등을 실시함에 필요한 통계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을 통해 국민학교 내신서의 내용을 검진하고, 내신서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등에는 공정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무시험 전형의 객관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라고 볼 수 있다.

무시험제는 1957년도에 도입된 이후 1958년에 와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무시험전형에 참가하게 되어 1958년은 가히 무시험제 전형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1958년 1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39개교 중 37개교가 무시험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58.1.11). 무시험제 도입을 꺼리던 서울에서도 압도적인 숫자가 무시험 전형을 채택한 것이다. 소위 명문학교라고 하는 경기, 서울, 경북, 용산 중학교에서 모두 정원의 1/3을 무시험 전형으로 뽑았으며 필답고사 방식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단독출제보다는 공동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험 전형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보성중학과 동덕여중 두학교 뿐이다. 무시험 전형을 100% 실시한 학교는 8개 학교이며 나머지는 모두 1/3 혹은 1/2를 무시험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접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까지 계속되었다. 1960학년도 입학전형을 신청한 서울시내 중학교의 입시전형을 보면 서울시내 총 108개 학교 중 전부 무시험 30개교, 일부 무시험이 50개교, 전부 유지시험이 28개교로 여전히 무시험제를 채택한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동아일보, 1959.12.20).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가 무시험전형제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험전형제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무시험전형을 통하여 경쟁률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졌으며 중학교간의 학교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더 심한 학교차를 조장하였다는 것이었다. 중학교 쪽이나 일부 국민학교 쪽에서는 확연히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학교에 따라 아동들의 실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변두리 학교'와 '도심지 학교'를 비교할 때 같은 성적이라도 그 실력은 '도심지' 아동이 사실상 월등히 나옴에 이것으로 평가를 하니 '도심지' 학교는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즉 중학교 쪽에서는 자신의 중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고, '도심지' 국민학교는 자기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변두리'국민학교 학생의 실력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실력'의 공정성 문제는 무시험제도를 혼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고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었다.

실력의 공정성 문제는 이와 같이 지역 학교에 따른 학생들의 실력차이 그리고 기계적인 상대평가에 의한 실력평가의 불공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공정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 당국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울시 한 장학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새교육,1959.5, p.56).

무시험 전형으로 일부 도심지대는 손해를 보았지만 변두리, 중간지대는 이득을 본 셈이지요. “취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버림을 받던 주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부형은 감격해서 서로 찾아와 인사를 하는 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무시험제에 의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변두리' 혹은 '시골'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됨

으로써 '버림받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안이나 밖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역차별적인 공정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차원 높은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다.

실력의 공정성 뿐 아니라 실력의 개념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시험의 방식을 중학교 단독출제로 할 것인가 학력검사(혹은 연합고사)로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문제는 실력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중학교 측과 국민학교 측의 교육관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측에서의 실력이란 축적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지식이라는 것에 반해 학력검사를 지지하는 국민학교 측에서는 실력이란 박제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것은 아동의 생활경험을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외에 중학교와 국민학교 양측은 평가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서로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였다. 즉 중학교가 단독출제할 경우는 중학교에서 평가의 전권을 갖게 되므로 중학교에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는 반면, 내신성적을 국민학교가 작성하는 경우 국민학교가 부정입학에 휩싸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학교가 평가권을 가질 경우에는 부정입학으로, 국민학교가 평가권을 가질 경우에는 '치맛바람'이라고 하여 학부모가 부정한 방식으로 평가에 영향을 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무시험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비판이 일어났지만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무시험제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심지어 중학교에게 무시험제 채택을 무리하게 강요하여 말썽이 나기도 하였다. 시교위는 1958년 12월에 '입시전형방법보고'가 이미 마감되었음에도 '전원 유시험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 "유시험제를 재고려하라"고 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동아일보, 1958.12.19).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학교, 특히 소위 '일류교'라고 하는 학교들은 모두 무시험제를 포기하고 유시험제를 채택하였다(동아일보, 1958.12.17). 뿐만 아니라 유·무시험을 병행하겠다고 한 소위 '이류교'에서는 무시험전형으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한 후 2차 전형에서 다시 필답고사를 보겠다고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무시험제에 대한 불만과 유시험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존재했다. 1960년 9월에 중학교 입시전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유시험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동아일보, 1960.9.15). 이 보도에 따르면 무시험전형에 대해서는 '무시험으로 공정을 기하기 어려우니 무시험 전형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5%가 나왔다고 한다. 또 무시험 전형에 찬성할 경우 '서울 시내 출신과 지방 출신을 따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찬성한 의견은 50%였다. 이 보도는 1960년 9월 18일자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18일자 보도에서는 설문대상이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전문가’, ‘시교육위원회’, ‘언론계’, ‘초·중등학교교장’, ‘교사’, ‘학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 설문대상이 얼마나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는 분명치 않다. 예컨대 ‘변두리’ 학교의 입장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해 주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치가 않다. 더구나 ‘무시협제를 실시하더라도 서울시내 학생과 지방 학생을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50%인 것으로 보아서는 설문대상자들이 상당수 특정 지역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1960년 11월 22일에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신성적을 일체 폐지하기로 하였고 다음날 무시협제를 폐지하고 유시협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60.11.23). 1961년에는 유시협제와 공동출제제의 형식으로 중학교 입학시험이 실시되었다.

2. 대안적 평가의 모색: 학력검사의 실시

중학교 입시제도를 무시협제도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논의가 국민학교 내신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다. 국민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역사 개혁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각 학교별로 실력차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적을 산출할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학입시 새교육론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인 학력고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학력검사를 계획하여 교육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초빙하여 지도와 조언을 받았다. 당시 학력검사를 작성하는데 고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에는 오천석(이화대학교 대학원장), 박희병(중앙교육연구소소장), 임한영(연세대학교 교수), 심태진(문교부장학관), 서명원(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수), 정범모(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성내운(중앙교육연구소 연구부장) 등이 있었다(새교육, 1957.9, p.86).

이러한 고문단 하에 서울시교육위원회 각 부처에서 학력검사의 제작 업무를 맡게 되었다. 위원장은 정연규 당시 학무국장, 부위원장은 윤형모 초등교육과장, 총무는 최윤수 장학관, 그리고 위원은 장학사 전원이었다. 이들은 먼저 1단계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원리의 재규명, 각 교과 단원 목표 분석, 국민학교 6학년 지도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각과 지도의 기저를 찾기 위한 요소표 작성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교육의 목표를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에 두었다. 즉, 아동의

자발적 학습 그리고 교육을 통한 생활의 개선이 교육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아동·생활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學力 혹은 實力이란 개념도 달라진다. 1950년대 새교육운동에 앞장섰던 풍남국교 교장으로 있다가 이후에 문교부 편수관으로 재직하였던 이수남은 새로운 학력관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여러 가지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부단히 갱신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실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지식의 양이었다면 새교육론자들에게 실력이란 바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을 개조 혹은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이수남, 1959, p.8-12).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중학교 입학시험의 방식은 기존의 잘못된 학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력을 측정하고자 했던 문교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지식 암기위주의 평가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실력이란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지식을 소비하는 힘'이라고 주장하였다(새교육, 1957.9, p.82-83).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하여 2단계 작업으로 문제를 작성하였다. 문제 작성기간에는 '기밀 엄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학사 전원이 문제를 작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실과, 보건, 음악, 미술 등 8개 교과를 각각 50점씩 배당하여 400점 만점으로 하였다. 8개과목에 걸쳐서 같은 배점을 줌으로써 특정과목에만 편중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로 작성된 학력검사 문제는 1957년 7월 23일 서울 시내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학력검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대체로 논리적 지식의 문제보다는 아동의 실생활에 접할 수 있거나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기존에 중학교에서 출제된 입학시험과 비교해 보자. 중학교가 단독으로 출제한 기존의 문제에서는 성적의 변별을 위해 맥락 없이 구문의 뜻을 묻거나 암기를 요하는 지식을 묻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경기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동아일보, 1959.3.8).

예1) 다음의 줄친 곳을 풀이해라.

사람이란 그저 '아무개'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람이다.

이 문제의 답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 문장은 당시 국민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지만 '어떤 사람'의 의미가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우기 전에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반해 학력검사에서는 훨씬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이 문제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새교육,1957.9, p.105).

(지문)

교문 앞을 지저분하게 하는 장사를 없애기 위한 六학년 각 반의 대표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토론되었다.

(갑) 교문 앞 간호당번에 여자도 두 명 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남자와 바꾸고 간호당번이 좀 더 노력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을) 장사가 제아무리 모여도 우리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저절로 물러 갈 것이니 우리학교 학생 전원에게 자각을 시키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병) 아니다. 장사들이 어린애라 하여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서 아무리 토론하여도 쓸데없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경찰관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쫓는 것이다.

1. 어느 대표가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여 말하였는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2. 어느 대표가 장사에게 대하여 가장 심한 말을 하였는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3. 가장 서로 반대되는 의견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4. 이 토론에서 여자를 무시하였다 하여 공격을 받았다면 누구였겠는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앞에서 인용한 중학교 단독출제의 문제의 경우 훨씬 문제출제가 쉽지만 그 문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거의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학력검사의 문제는 문제출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문제를 대하는 학생들은 친숙한 자기 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훨씬 아동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국어의 글짓기 한 문제와 미술, 음악, 보건 등에서 행한 실기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다.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기 위함이었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은 실기고사에서도 나타났다. 체육은 달리기, 팔굽혀펴기, 매달리기 등 수치로 측정가능한 부분만을 실시하였다. 음악의 경우가창이 있었는데 20점 만점에 기본점수를 15점을 주어 폭이 크지 않도록 하였고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미술의 경우는 5문제를 주었는데 주로 측정가능한 형태로 문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창작에 관한 점수보다는 기초 기술에 관한 평가 위주였다. 예를 들면, '광선을 위로 받고 있는 사기 찻종을 그리고 밝은 데와 어두운 데를 나타내시오'와 같은 문제는 빛의 각도와 그림자의 위치를 그릴 줄 아는 것을 묻는 것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을 물어보고 있다.

세제, 검사 영역을 전 교과로 확대시키고 동일한 점수를 배당함으로써 종래의 4교과 중심의 편파적 교육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 아예 실시하지 않았던 보건의 경우 학력검사에 들어감으로써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보건 성적은 기본 점수를 주었음에도 너무 좋지 않게 나오자 모 학교에서는 보호자 회까지 소집하고 가정에서 보건과의 지도에 협력하여 주기를 바란 일도 있었다고 한다(새교육, 1957.9. p.127).

학력검사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것 자체로서 현재의 교육상태를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위 '일반교과목'(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에 치중하고 '기능교과'(음악, 미술, 보건, 실과)는 등한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교과목에서도 주로 암기식 교육이 진행되어 '글짓기'문제의 경우 극히 저조한 점수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교육상태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각 학교별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소위 '일류' 국민학교에서는 특정학과만 치중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오히려 '변두리' 학교에서는 골고루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렇게 동아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리고 학교별 성적을 보면 소위 일류학교라고 불려지고 있는 시내 몇몇 국민학교는 '국어', '산수'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으나 '음악', '보건' 등에는 성적이 나빴고 오히려 2류, 3류에 속한다는 학교의 성적이 각 과목에 고른 성적을 나타냈으며 어떤 학교는 '음악'과목이 평균 30점(50점만점)이상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동아일보, 1957.7.31).

학력검사 결과 전체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그 학교가 행하는 교육 방식의 차이에 따라 성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학력검사 결과로 현 국민학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력검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동아일보, 1957.8.2).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을 보면 학력검사의 효과가 대체로 만족스러웠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학력검사가 실시되고 난 후 반응은 대체로 반응은 호의적인 편이었다. 특히 아동·생활중심주의 교육에 동조하는 국민학교 교사들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에서 보면 찬성한다는 쪽이었다(새교육, 1957.9. p.112-136). 당시 새교육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서울사대 부국의 교장 이창우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나는 이번 서울시교위에서 한 학력검사의 출제를 보고 호감을 가진다. 문제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 서투르고 억지로 문제를 꾸민 것도 있어서 이것으로 과연 학력을 제대로 잴 수가 있을가 의심나는 것도 있기가 하지만, 그 Principle이 분명히 서있고, 여기 맞추기 위하여 노력해 준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일반 교육계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을 믿고 기쁘게

생각했다. 혹시 내년에 가서 중학교입학시험에 이러한 출제방향에 일고도 하지 않고, 자기편견을 고집하여 종래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새교육에 대하여 반동이 아닐 수 없으리라(새교육, 1957.10, p.51).

1958년도에는 이름을 연합고사로 바꾸어 서울시내 91개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이 성적을 1959학년도 국민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동아일보, 1958.12.19). 이 때는 이미 무시험전형에서 국민학교 내신성적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서 '일류'학교의 경우 대부분 무시험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진 시기였다. 따라서 내신성적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1959년도 실시된 학력검사는 전국의 5,6학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위 '일반교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을 택하여 지필고사만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신성적의 전형자료를 삼는데 쓰지 않고 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국의 기준점으로 환산하여 각 학생의 학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동아일보, 1959.4.18). 이외에 1959년 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학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평가는 1957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8개과목 전체를 평가하였다(동아일보, 1959.11.7).

1959년에 실시된 학력검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어났으나 대체로 문제의 난이도와 학교현실과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였지, 이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학력검사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학력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학력검사는 문교부 관리가 주장한대로 중학교 입학시험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력검사는 1959학년도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내신성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무시험전형을 채택한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학력검사가 입시에 미친 영향은 문제출제 방식에 있었던 것 같다.

이전에 중학교 단독으로 출제한 경우, 출제가 손쉽고 학생들의 실력을 쉽게 변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제하였다. 이것은 난이도만 높았을 뿐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나 아동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학교 교과내용의 특정한 지식을 물음으로써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즉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많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중학교 단독 시험은 국민학교 교육 특히 고학년의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학력검사는 확실히 국민학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로 아동이 사고할 수 있도록 의도된 내용이었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입시과목인 '기능

교과' 성적이, 소위 '일류교'보다는 '이류', '삼류교'인 '변두리' 학교들의 성적이 더 좋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변두리' 학교들이 '도심지' 학교보다 1차 교육과정의 이념인 아동·생활중심의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준비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국가의 교육과정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시험형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중학교 단독출제의 대안으로서 실시된 공동출제 형식의 연합고사 문제는 기존의 단답형이나 서술형 위주가 아닌 객관식 특히,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었고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문제내용으로 변화되었다. 1958년도 서울시에서 공동출제된 문제는 대부분 선택형으로 구성되었고 내용도 아동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였다(동아일보, 1959.12.20). 1961년에 실시된 서울시 공동출제의 문제도 학력검사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61.3.11).

새교육론자들은 새로운 평가의 대표적인 방식이 사지선다형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 사고와 추론을 통해 답함으로써 아동의 암기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입장에서는 답지를 미리 제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며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국 학력검사를 통해 제시된 사지선다형 객관식 평가형태는 보편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58, 9년의 경우 일부 산수에서 일부 주관식 문제가 남아 있었지만 객관식 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1962년 국가시험에서는 전 과목에서 사지선다형의 형식으로 출제하게 되었다.

문제의 내용이 아동의 생활을 많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59년 서울시에서 연합하여 출제한 산수문제의 경우, 수학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계산을 문제로 만들었다. 이 문제는 수학여행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계산들이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의 계획표를 제시하고 참가한 학생들의 비용, 기차의 빠르기, 여행하는 총 시간 등을 묻는 형태였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아동의 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힘을 측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생활에 얼마나 관련되는지, 그리고 자기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얼마나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예를 배경으로 했을 뿐 결국 기초적인 계산력을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앞에서 제시한 연합고사의 문제 역시 식민지기의 문제유형과 비슷한 특징을 띠고 있다. 아동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많고, 아동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초점은 아동이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술 계산 능력 정도를 측정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형태로 문제를 제시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전체 중학교가 공동출제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단독출제를 고수했던 경기중학교의 경우 산수는 1959년 출제된 문제에서도 아동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심지어 아동의 생활을 배경으로도 활용하지 않은 채) 계산 문제만 제시했던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연합고사나 이후의 중학교 입학시험의 형태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바뀌었고,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더 확보하려 하였다. 점에서는 기존의 일류 명문중학교가 낸 시험에 비해 더 생활중심적인 특징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생활중심적인 특징이란 아동이 생활하며 겪게 되는 문제사태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계통적 지식의 학습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활사태를 배경이나 사례로 끌고 온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습활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형태는 또 다른 형태의 지식중심적인 평가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형태의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객관성의 확보였다.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태는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필답고사 안에서 주관식 문제, 특히 단답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는 형태의 문제는 사라졌다. 국어과의 글쓰기가 그 예이다. 실기검사에서도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모두 필답고사로 바뀌거나 수량화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요소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객관적 평가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학력검사에서 태도영역이 제외되었다. 아동·생활중심주의에 따르면 학습의 3가지 중요한 영역이 이해·태도·기능이었지만 학력검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태도에 관한 사항은 빠지고 이해·사고·기능 3분야로 나누어서 문제를 제작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객관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태도의 영역이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출제하였더라도 논란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태도의 영역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아동·생활중심주의에서 아동의 주체성은 태도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동 주체성이란 부분은 점차 약화되어갔다. 아동은 교육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주체성보다는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의 흥미가 더 중요시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해·태도·기능의 3영역을 이해·사고·기능의 3영역으로 바꾼 것은 아동의 주체성의 비중이 약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스스로 배우는 자발적인 태도보다는 아동이 학습해야 할 지식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으며

해방이후에도 중학교 단독시험으로 실시된 중등학교 입학시험제도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국가고시제도가 불가피하게 시행되다가, 전쟁 후 중학교 교장들이 선발권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은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긴급 유시로 중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가져가고 중학교 입시문제는 중학교가 단독으로 출제하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특히 국민학교 측에서는 입시교육으로 인해 국민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을 비판하면서 중학교 입시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크게 봤을 때 중학교 측은 단독출제제를, 국민학교측은 무시시험제를 주장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중학교측과 국민학교측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 첫째, 학생선발권의 측면에서 볼 때 중학교는 당연히 단독출제제를 주장했다. 자기 학교의 학생을 뽑는 권한을 그 학교가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학교 측은 이에 대해 반대했다. 그것은 국민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파행적이란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말하는 데 여기서 양측의 학력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두 번째 측면은 바로 학력에 대한 견해이다. 중학교에서는 학력이란 체계적으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암기란 불가피한 것이며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답고사의 형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국민학교측은 학력이란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단순한 암기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력을 측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사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평가도 국민학교 교사가 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평가는 국민학교 교사가 하고 이를 근거로 중학교측이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시시험전형제를 지지하였다.

세 번째 측면은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실력있는 학생 순서로 뽑는 공정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주관식과 논문식으로 구성된 중학교 입시문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중학교측의 입장이었다. 이것은 두 번째 학력관에서 자연스럽게 추론되는 결론이다. 국민학교측은 이와 다른 실력관에 기초한 공정성을 주장했음은 물론이다.

네 번째 측면은 평가권에 관한 것이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학력의 견해차에 따르면 당연히 양측은 자신이 평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평가의 전권을 가지게 될 경우 부정이 행해진다면 서로 반대했다. 실제 중학교에서 평가의 전권을 가질 경우 부정입학이, 국민학교에서 평가의 전권을 가질 경우 ‘치맛바람’의 부정이 일어났었다.

다섯 번째 측면은 학교차에 관한 것이다. 중학교 측은 무시험제를 할 경우 국민학교 간의 서열화는 없어질지 몰라도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의 서열을 매겨 학생을 지원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국민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중학교의 서열을 매겨 성적순으로 추천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국민학교 측은 단독출제를 할 경우 소위 명문중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생을 넣었느냐에 따라 국민학교 서열이 결정되므로 반대했다. 이에 반해 무시험전형제는 이러한 서열화를 많이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학교 측은 중학교 단독 출제를 국민학교 측은 무시험제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빠져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국민학교 입장에서도 '소위' 일류국민학교의 입장은 따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소위 '일류' 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말한 국민학교측의 입장과 반대되는 면이 많다. 오히려 중학교의 입장과 더 가깝다. 이들이 일차적인 요구는 '실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무시험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변두리' 학교나 농촌 학교 학생들과 같은 수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이 중학교측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 역시 바라고 있었다. 아무리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극한적 입시경쟁에 빠져 있는 데 찬성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소위 '일류' 국민학교 학부모나 교사의 입장은 위의 두 입장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기존의 중학교 입학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를 제시하려는 '거사'를 계획한 것이다. 즉, 국민학교 교육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제시하려 하였다. 새로운 평가는 중학교 측에 대안을 제시하고 입시준비로 왜곡된 국민학교 교육을 바로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제작된 것이 '학력검사'였다.

이러한 형태로 실시된 학력검사는 큰 반향을 낳았고, 중학교 입학시험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공동출제 시험도 이러한 형태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교위가 제시한 학력검사가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연합고사의 형태는 점차 객관형 중심의 학력검사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학력검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상급학교 입학경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객관성의 확보였기 때문이다. 객관성의 확보는 물론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지만 특별히 '도심지' 학교의 학부모나 교장이 더욱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다. 실력이 없는 '변두리' 학교의 학생이 실력 있는 '도심지' 학교의 학생보다 높게 평가받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한 것이었다. '깨끗하게 실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이 요구되었다.

새교육론자들의 이념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학력검사는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아동의 생활

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했다. 학력검사가 아동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중학교 단독출제의 시험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먼저 아동의 태도를 측정하기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사실상 아동의 태도는 이러한 형태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불가능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혁 이념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태도 변화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아동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어야 했다.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태도에 관련된 부분을 아예 평가영역에서도 제외시켰다. 주관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실기검사에서도 모든 문항을 객관화하였고, 객관화할 수 없으면 아예 제외시켰다.

결국 태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해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즉, 일상적인 생활기록을 통해 교사가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는 입학시험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태도에 관련된 평가는 어떤 점에서도 반영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1950년대 중등학교 입시를 둘러싼 갈등의 귀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갈등은 결국 1958년을 기점으로 하여 무시험제의 실패로 끝이 났고, 공동출제 형태의 시험제로 귀결되었다고 볼 때 중학교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제도의 경우 중학교 측의 단독 출제제도 결국은 폐지되고 공동출제의 시험제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그 공동출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고, 문제내용은 생활과정과 계통과정을 절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등학교 입학시험이 이러한 형태로 귀결된 것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기보다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측의 요구, 혹은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입장이 절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아동의 주관적 태도의 측정과 그것을 측정하는 국민학교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을 희생한 것이었다. 결국, 아동중심적이고 생활중심적인 교육,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의 태도에 관련된 변화가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연구논문>

- 강일국(2002). 새교육운동 연구. 1950년대 초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주사범학교·同부속국민학교(1991). 새교육의 연구와 실천. 교학사.
- 김기석 편저(1987). 교육사회학탐구. 교육과학사.
- _____ 편저(1994). 교육사회학탐구 II. 교육과학사.
- _____ (1999). 교육역사사회학. 교육과학사.
- 김두성(1959). 무엇이 소위 '새교육'이었나?. 새교육.1959년9월.
- 김천기(1992). 진보주의 교육이 한국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수정주의적 분석: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30권 2호.
- 문교부편수국(1957). 국민학교학력검사 총비판. 새교육. 1957년 9월.
- 백파 조석기선생회갑기념문집간행회(1598). 노변야화. 동아출판사 공무국.
-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1948), 『생활중심 국민학교 신교육상』.
- _____ (1954), 『국민학교의 교육계획』, 수문각.
- _____ (1955), 『기초조사 및 교육과정의 연구』.
- _____ (1958), 『입시사검보고서』.
- 심태진(1946). 사회생활과교육론. 제1회 민주교육연구회 주최 민주교육연구강습회 속기록. 1946. 11. 10.; 심태진(1981). 석운교육논집. 우성문화사.
- _____ (1949). 학습지도개론.司空桓 외(1949). 위의 책.
- _____ (1981). 석운교육논집. 서울:우성문화사.
- 심태진·신집호·문영한·이창갑(1994). 사우문선. 서울:교문사.
- 이길상·오만석(1997). 한국교육사료집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수남(1959). 국민학교 학습지도. 서울:태백출판사.
- 인천창영국민학교(1950). 학교요람. 인천창영국민학교.
- 최윤수(1949). 민주주의 민족교육과 학교경영의 이념, 사회생활과와 민족교육. 새교육. 2권1호 1949년2월.
- _____ (1956). 4290년도 중학교 입학자 전형방안고찰. 새교육. 1956년도 11월호.
- 효제국민학교(1987). 효제구십이년사.

<자료>

- 동아일보. 1946- 1961. 동아일보사.

새교육. 1952-현재. 서울:대한교육연합회.

<구술자료>

서울대학교 韓國教育史庫 주최 문영한·권혁채 선생 강연. 1995.1.24.

서울대학교 韓國教育史庫 주최 심태진 선생 강연. 1995.5.13.

서울대학교 韓國教育史庫 주최 홍웅선 선생 강연. 1995.4.1.

심태진 선생 구술자료. 1995.9.19.

* 논문접수 2004년 8월 5일 / 1차 심사: 2004년 9월 30일 / 2차 심사:2004년 11월 16일

* 강일국: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사회학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해방이후 초등학교의 교육개혁운동과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1950년대 초등교육과정 개혁의 특징”, “해방 후 초등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개혁” 등이 있다.

* e-mail : ilguk@mokpo.ac.kr

Abstract

A study of the reformation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1950s

Kang, Il-G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what process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as changed in 1950s and how tried they who required reform of the old system and what the result was. After 1945 when Korea was released from Japanese totalitarian occupation, the South Koreans attempted to reform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middle schools.

The people who attempted to stipulate reforms were largely those who tried to change the oppressive educational practice that had resulted in the aftermaths of the Japanese totalitarian occupation of Korea. They was leaders of so called New Education Movement (NEM). They insisted the new type of examination system without written exam and new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ntrance examination, the NEM leaders planned this new type of examination and evaluation.

But this change triggered a lot criticism and repulsion. The main point was that this new evaluation system was unfair to some students who had had good academic records under the old evaluation system. Most of them were students of the schools that were famous for the high records under the old system. Of course, most of the students who graduated these schools entered the higher ranking high schools.

Consequently, the new type of entrance examination had been transformed into another system which had not been intended by NEM leaders. This system applied the objectivity of questions. This new type of evaluation in primary schools was the same as the entrance

* Mokpo University

examination. Although the NEM leaders succeeded in changing the old type of evaluation however, they failed in reforming the new one to assess the ability of students to apply their knowledge practically, in their own lives and thus change them.

Key words: New education movement, Middle school, Entrance examination, Reformation of examination, 1950s.